



식품업계
용량 ↑, 가격 ↓
물가안정 동참
나

metro®

Life

큐라클
파이프라인 확장 등
신성장동력 마련
L2



“고온·고출력에도 끄떡없이… 극한주행, 믿고 달린다”

인터뷰

오네 레이싱 팀

“고온에서도 점도 변화가 없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레이싱의 세계에서 1초의 차이는 순위를 좌우하고 극한의 주행 환경 속에서 엔진과 기어, 연료는 한계까지 시험받는다.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가 펼쳐진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난 오네 레이싱 드라이버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이 말하는 차이의 핵심에는 HD현대오일뱅크의 윤활유와 연료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레이싱 팀 중 하나인 ‘오네 레이싱(오한솔, 이정우, 김동은)’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며,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공식 케미컬 스폰서로 참여해 고급윤활유 ‘엑스티어(XTeer)’와 고급휘발유 ‘카젠(KAZEN)’을 후원하고 있다.

올 초부터 팀이 본격적으로 사용 중인 HD현대오일뱅크 제품군은 레이스 내내 안정적인 엔진 출력 유지와 정밀한 기어 변속, 노킹 억제에 기여하며 드라이버들의 주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드라이버는 “레이싱카는 경기 내내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윤활유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엔진이 가진 힘을 전부 쓰지 못하고, 심하면 도중에 출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티어 엔진오일은 체커기를 받을 때까지 꾸준히 성능을 유지해주는 게 장점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네 레이싱 팀에 다양한 윤활유 제품 중 엔진오일인 ‘XTeer Top PAO 5W-30’, ‘트랜스미션 오일 XTeer GL-5 75W-90’, 디퍼렌셜 오일 ‘XTeer GL-5 85W-140’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낮은 마찰, 낮은 점도의 엔진 윤활로 내구성 및 보호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드라이버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고성능 윤활유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 이상이다. 변속이 잦은 레이싱카의 특성상, 오일의 점도 유지력과 기계적 마찰 감소 능력은



(왼쪽부터)송현준 엔지니어와 이정우, 오한솔, 김동은 선수가 경기 전 HD현대오일뱅크 엑스티어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제품, 주행 뒷받침
고성능 엔진오일, 고급휘발유 등 후원
내구성·보호기능 결합… 만족감 높아
고온환경에도 점도·질감 변화 없어

고급휘발유 ‘카젠’, 노킹저항성 개선
6년간 슈퍼레이스 공급… 성능 입증
안정적 연소 제공, 출력 끝까지 유지

주행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정우 드라이버는 “저희 차량은 시린 설 미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속을 자주 반복하는데 이때 윤활유가 제 기능을 못 하면 실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며 “엑스티어는 그런 부분을 잘 버텸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출력 차량이 슬릭 타이어를 쓰면서 접지력이 강한 상황에서 출력을 손실 없이 뒷바퀴에 전달하려면 디퍼렌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대회에서도 손실 없이 깔끔하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고급휘발유 ‘카젠’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동은 드라이버는 “고RPM 영역에서 엔진 부하가 커질 때 옥탄가가 낮으면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데, 카젠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며 “특히 노킹이 일어날 법한 순간에 ‘멈칫’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없으니 마음 놓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젠은 일반 고급휘발유의 옥탄가(94)보다 높은 100의 옥탄가를 제공해 노킹 저항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년간 슈퍼레이스에 이 제품을 공급하며 성능을 입증해왔다. 특히 고출력 엔진 환경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통해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지난 12일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경기를 앞두고 정비사들이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



오네레이싱 팀 차량 정비 부스 모습.

/이승용 기자

에서 경기 팀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김동은 드라이버는 “엑스티어는 일반 차량용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환경에서도 충분히 버텨낸다”며 “고온에서도 점도 변화가 없고, 질감도 일정해서 오히려 일반 제품 중에선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레이싱팀 엔지니어 역시 엑스티어와 카젠의 성능을 극찬했다.

오네 레이싱팀의 송현준 엔지니어는 “연료와 오일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를 마친 뒤 정비하면서 보면 답이 나온다”며 “카젠은 안정적인 연소를 제공해 마지막 랩까지 출력을 유지했고 엑스티어 오일은 고온 환경에서도 점도 변화

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한솔 드라이버는 “미션 오일이 극한 환경을 버텸지 못한다면 기어 체결 타이밍이 안 맞는 등 경기 결과와 직결되는 차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출력 저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랩 타임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준비 많이 했고, 기대하셔도 좋다”며 “항상 현장에서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에 힘이 나고, 좋은 엔진오일과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웃으며 토트넘 훈련 시작…양민혁 “손흥민 그리웠다”

▲생애 첫 원불단 결승 오른 아니시모바, 세계랭킹 톱10 첫 진입

/사진 뉴시스

▲선두 한화 추격하는 LG·롯데 맞대결…프로야구 후반기 17일 시작

▲국가유산진흥원, 광복 80주년 기념 액세서리 기프트 출시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클래식-라흐마니노프와 피아노’…신창용 협연

▲여름 산사서 펼쳐지는 뮤지컬 향연…화엄사 ‘모기장 음악회’